요란한 서민대출 실적은 '빈수레'

미소금융 석달동안 2만여명 상담받고 600여명 지원

기준 까다로워 서민들 외면… 돈 빌려줄 점포도 적어

미소금융처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들의 실적이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까다로운 대출기준 탓에 광주·전남지역 미소금융지점의 수혜자가 20명선에 그치고 있고, 최근 시행된 지역희망금융사업은 대출한도액(300만원)이 적어 큰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다.

◇지원 실적 부진=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은 작년 12월 15일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석 달여간 581명에게 총 4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는 상담자 1만9천41명의 3%에 불과하며, 미소금융 대출자격을 확보한 6천86명의 9.5%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이 10년 동안 2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추세라면 목표의 10분의 1 수준인 2만5천명을 지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소금융 광주 서구지점과 포스코 미소금융 광양지점의 3월말 현재 대출인원은 각각 17명과 5명에 그치고 있다. 대출액은 광주가 1억5천만원, 광양은 2천500만원이다.

지난 1월 개점한 광양지점에서는 250명이 적격 심사를 받아 14%인 35명만이 대출적격자로 선정됐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를 감면하고 만기도 연장해주는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작년 4월 실시된 이후 지난달까지 7천171명에게 적용됐다. 이는 이는 상담자 3만1천785명의 22.6%에 불과하다.

정부와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가 재원을 출연해 최근 시행한 '지역희망금융사업'은 미소 금융 대출한도액(500만원) 보다 적은 액수(300만원)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금고 연합회 관계자는 "대출한도액 때문에 대출을 외면하는 영세상공인들도 적잖아 대출액 상향을 중앙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높은 대출 문턱 기관 소극적 대응=미소금융사업의 대출실적이 미진한 것은 지점 수가 적은 데다 대출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전국을 통틀어 미소금융지점은 34곳, 광주·전남지역은 단 4곳에 불과하다.

대출 조건 가운데 창업대출의 경우 창업자금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대출 문턱을 높인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업자등록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1년 이상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스코 미소금융 광양지점 관계자는 "올 대출 목표인원인 100명을 채우기 위해 영업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 조건이라면 적격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상공회의소·광주은행·광은리더스클럽은 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지역사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장병완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대표, 정순호 광주지방노동청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창남 리더스클럽 중앙회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노사 문화 선진화 원년 열겠다"

광주고용포럼 특강 임태희 장관 밝혀

8일 광주를 방문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노사의 생산적 교섭을 위해 조정에 적극 나서는 등 올해가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광주고용포럼'에서 '2010년 노동정책 추진방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특강을 통해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파업 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생산적 노사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노사 문화와 파업 관행을 개선하고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끌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면서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라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업애로 계층의 지원과 경제 각 주체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앞서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은행, 광은리더스클럽 등 4개 기관은 '지역사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식'을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호남대표 랜드마크로"

법인설립 15돌… "지역민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 될 것"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주)광주신세계가 10일 법인설립 15주년을 맞아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호남 대표 랜드마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5년동안 '지역 동반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회공헌사업, 장학사업 등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청과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을 공동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또 빈곤가정 아동 지원,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희망배달 기부사업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 기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성과를 올린 결과 지난해에는 국내 유통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200대 중소기업'에도 뽑혔다.

광주신세계 이장환 대표이사는 "기업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성장으로 기업가치를 확대하고 지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KT, 롯데백화점에 무선 인터넷존

광주는 6월부터 서비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서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전국 26개 롯데백화점 내에 와이파이(Wi-Fi) 무선인터넷존인 쿡앤쇼존(QOOK&SHOW Zone)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쿡앤쇼존 구축을 포함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4월 롯데백화점 관악점을 시작으로 연내 전국 롯데백화점에 쿡앤쇼존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오는 6월께 롯데백화점과 4곳의 롯데마트에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된다.

쿡앤쇼존 구축이 완료되면 백화점 내 각 층에 구축된 휴게공간, 식당가 등에서 고객이 쇼핑 중 휴식을 취하면서 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KT의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i요금제) 가입자는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 통신사 고객도 별도의 무선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양사는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향후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롯데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쿡앤쇼존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쿡앤쇼존을 이용한 다양한 공동 마케팅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필상기자 kps@